



자활공감

Jeonnam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전남광역자활센터「자활공감」 23호

새해 인사드립니다

전남광역자활센터장 김삼용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활사업 참여주민, 자활기업 가족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내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남광역자활센터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활기찬 한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는 자활근로 급여단가가 시장진입형 기준으로 27%로 대폭 인상되었고, 자활장려금제도가 부활하는 등 자활참여주민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반면에 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지 못해 아쉽습니다.

2018년 전남광역자활센터 사업을 되돌아보면 전남 23개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전남자활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적은 사업예산이지만 자활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지원사업, 자활기금을 통한 규모화 및 특성화 지원사업, 전남자활사례관리사의 직무역량 강화 및 금융사례관리 특화사업, 중앙자활과 연계한 우리동네 크린케어 시범사업, 자활상품 판로개척 및 확대 등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활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건이행 참여자수의 지속적 감소, 근로능력 미약자의 사업 참여 비중 확대, 자활기업 수 감소 등...

새해를 맞아 저희 전남광역자활센터 직원들은 다시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자활사업의 성장지원, 전남형금융사례관리 체계구축 등을 위해 광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떠오른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획한 일들을 한 해 동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자활참여주민들과 자활종사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여 황금돼지를 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謹賀新年



자활공감

Jeonnam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전남광역자활센터「자활공감」 23호

2018 전남자활포럼

“전남 농어촌지역 특화형 자활사업모형 프로그램 제시”

전남광역자활센터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공동주관으로 12월 11일(화)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전남23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농어촌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표준화사업, 도시형 중심의 자활사업에서 벗어나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의 방향을 찾기 위해 올해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과제인 ‘전남 농어촌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모형개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김창표 전남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자활사업은 사업선정과 운영방식이 대도시 중심이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연령, 저학력, 근로능력 미흡 등 자활참여자의 취약한 인적자본 특성과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자활사업의 경제적 성과 목표 달성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전남 농어촌 특화형 자활사업 모형으로 자활참여자 개인, 자활사업단,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유용성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로선 정찬희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차장, 위수미 전남지부 정책위원장, 김대용 전남사회적경제연구소장, 김삼용 전남광역자활센터장이 나서 농촌형 자활사업의 발전방향과 사업모델화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8 신규자활사업 아이템 설명회 개최

자활현장에서 신규 사업 아이템은 중요한 고민 중 하나로, 지역적 사업 아이템 한계를 극복하고 타 지역 사업사례를 접목할 수 있도록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 광역자활센터 공동으로 신규자활사업 아이템 설명회를 11월 14일(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80여명의 호남권 지역자활센터 실무자가 참석 하였으며 전남지역에서는 굴뚝이한 사업, 원예 및 숲공예 사업, 전북 지역에서는 행복담은 이사전문점, 독거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나눔 사업, 광주지역에서는 새집 증후군장비사업, 자활형 외식프랜차이즈 ‘함께 밥상’ 등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였다. 신규자활사업 아이템 설명회로 전남 자활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자활공감

Jeonnam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전남광역자활센터「자활공감」 23호

전남광역자활센터 사업 성과보고회

Agian Start!

2018년도에 전남광역자활센터 지원사업의 성과와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Agian Start 슬로건을 가지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전라남도,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타 광역자활센터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반적인 PT보고형식에서 벗어나 영상물 상영과 현장 나레이션으로 생동감을 살린 발표형식과 사례발표로 컨설팅분야에 전남사회적경제 연구소 김대용 소장, 센터연계사업으로 장성지역자활센터의 사례발표를 들었으며, 트리제작 시연을 통한 사업단소개, 사업 STORY 존, 홍보촬영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포트폴리오 전시 및 영상 상영,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품 전시, 디자인 개선작, 지역자활센터 신규제품 소개 코너, 광역 지원사업 리서치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행사로 자활사업 관계자 간 사업성과 교류와 자활지원(기금)사업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지역 특성화와 자활사업 다각화를 위한

2019 전남자활 「유망사업 아이디어」 공모

전남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근로능력미약 수급자의 참여가 용이한 단순 노동집약적 사업·서비스용역의 비중이 높아 시장 수요와 창업자 역량 비례성에 따른 자활기업 창업으로 한계를 가져왔다. 전남지역특성, 참여자 역량, 트렌드에 맞는 신규자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을 통해 자활사업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2019 전남자활 유망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1개월 동안 접수를 받았으며, 시상으로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상금이 지급된다. 12월 21일 최종 인터뷰 심사를 걸쳐 대상 수제그레놀라 제조(해남), 우수상 해바람 생선사업(목포), 장려상 맑고푸른 마을사업(장흥)이 선정되었다. 공모에 채택된 사업은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조사 의뢰, 신규 자활사업개발 자료로 사용되며 지역 센터에 보급 예정이다.



2018 동반성장 프로젝트Ⅱ 「동반성장 멘토링 캠프」

-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10:30~17:30
- 장소 : 장성지역자활센터 교육장
- 대상 : 2018년 동반성장 프로젝트Ⅱ 참여한 멘토 및 멘티(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우수 자활기업 대표, 종사자), 담당 사업팀장 19명
- 주최/주관 : 전남광역자활센터

※ 양성된 동료지원가(멘토) 활동에 대한 격려 및 지지를 통해 동료지원가(멘토)와 동반기업(멘티)의 일대일 매칭 직무교육을 통한 기술이전과 교류 활동 정리 및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동료지원가(멘토)와 동반기업(멘티)의 평생 멘토링 결연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자활공감

Jeonnam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전남광역자활센터「자활공감」 23호

제4회 전남 자활기업 연찬회

‘2018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의미와 과제

전남 자활기업간 정보 교류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제4회 전남 자활기업 연찬회’가 12월 10일 장흥지역 자활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자활기업협회 오인숙협회장을 통해 한국자활기업협회 설립과정 및 설립 후 성과를 확인하였고, 박기홍 사무국장으로 부터 ‘2018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른 자활기업 협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센터는 전남 82개 자활기업이 ‘같이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다.



청소자활사업 공공영역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전라남도 교육청 소독·방역분야 자활사업 공동 제안

전남광역자활센터는 ‘시·군 단위 학교 소독·방역 자활기업 우선 계약’을 목표로 전라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법정의무 소독방역-자활기업에 수의계약을 권고하는 정책방침 제안을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와 전남 청소자활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제안서를 작성, 11월 30일 전라남도 교육청에 제출하였다.

1.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조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기업 지원(제18조 3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자활기업 수의계약 근거 조항(제25조 5항)

본 공동제안서가 전라남도 교육청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청소자활기업의 재도약의 계기가 되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이어 청소자활사업의 새로운 공공영역 사업모델 개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전남 청소자활사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전남 청소자활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 청소역량강화지원 사업’을 11월 21일~12월 19일 동안 공동교육 1회, 개별교육 8회(자활기업3개소, 자활근로사업단 6개소) 총 85명을 대상으로 청소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공시장 사업영역 확대를 목표로 자활기업 대상 전자입찰 교육과 청소사업단 대상 현장실무교육 그리고 소독방역 실무교육을 통한 의무소독 사업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별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으며, 전남광역 자활센터는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자활사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공감

Jeonnam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전남광역자활센터「자활공감」 23호

2018 전남광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성과니눔세미나’

-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13:30~17:30
- 장소 :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2층 세미나실
- 대상 : 전남복지재단, 전남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전담사례관리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 유관기관 총 40명
- 주관·후원 : 전남광역자활센터, 전남복지재단
- 내용
 - 전남광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보고
 - T.I.P 정서적자활 프로그램 도입센터 사례발표 3개소
 - 희망플랜 금융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II 공모센터 사례발표 3개소
 - 전남광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연구사업 결과발표

※ 참여자의 욕구, 강점, 역량에 따른 효과적인 자립지원 및 업무과정 등의 공유로 자활사례관리사 역량강화 지원 및 인식기반 확대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특수성에 입각한 광역단위 자활사례관리 지원체계 구축 사례관리사업 공유. 그리고 전남광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성과측정과 금융사례관리 모델제언 연구결과 발표 및 자활사례관리 방향성 모색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샵

‘꽃차와 야생화 재배’ 사업 참여센터/

‘전남광역주거복지협동조합’ 광역자활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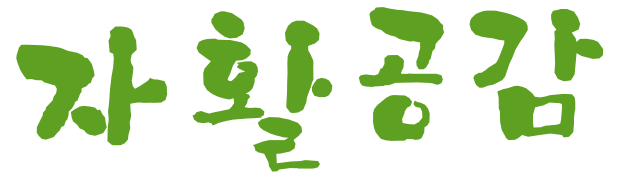
규모화를 통해 자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영농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하였다.

영농사업은 2018년 전남 자활사업 규모화 사업으로 선정된 ‘꽃차와 야생화 대량생산’ 사업에 참여하는 7개 기관(고흥, 강진, 신안, 담양, 순천, 해남, 함평)을 대상으로 구례 지리산야생화농장과, 노고단야생화농장, 구례야생화연구소를 방문해 야생화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월 13일 현장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주거복지사업은 2015년 광역자활기업으로 설립인증된 ‘전남광역주거복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9년 국토부형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목표로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하고 경북 주거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교류를 통한 연대협력을 다지고자 12월 14~15일 동안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남 영농사업과 주거복지 사업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전남광역자활센터「자활공감」 23호

전남 지활상품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인증검사 지원

전남자활상품의 쇼핑몰 입점으로 상시적 판매 구축과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북광역에서 운영하는 스몰세그루 쇼핑몰에 전남자활상품 9개 상품이 입점 했으며, ‘진도 울금 누룽지’가 신규로 녹색나눔 입점하였다. 향후 울금 누룽지는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입점 예정이며,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인증·검사 지원 부분에서는 해남 행복한 밥상(자활기업)의 마늘고추장, 보리고추장, 우리밀악과의 자가품질검사와 마늘고추장 성분검사를 지원하였으며, 인증·검사 지원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가 한층 향상되어 믿고 구입하는 전남자활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Happy New Year!! 2019!!

Lorem ipsum sumo feni quodsi et iun

Mellum iudicio fuisse ex scriptore conetur ut hi, per ut libet consequantur. Perinde consequantur cu quo. Vs no ty aliquando, ex dicant iudiciali mel

Et per hoc alterum quoque, cum deus nominat eximiam vi-